

이 보도자료는 11월 3일 배포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4일(수) 조간용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매

과 장	이 진 섭	509-6036
팀 장	남 점 숙	509-6411
담당자	이 희 성	509-6416

부평구,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3일 16시에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차준택 부평구청장,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 및 문화도시 사업 주요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구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평구는 지난 5월에 용역을 발주해 내년 1월까지 8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부평의 문화 환경을 분석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예비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진단해 법정 문화도시 정책 안에서 5개년 사업 추진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중간보고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주요 관계자들과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구는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지난 10월에 제출한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위한 서면평가 자료의 검토의견,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문체부 현장실사의 점검결과 및 문화도시 컨설턴트 자문 실시를 통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연말까지 향후 10년의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및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5년 이후의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현이다. 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사업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